

수시 경쟁률 ↓ 건국·고려·동국 웃고 경희·국민·서강 울고

전형방식, 제한조건 따라 경쟁등락
서울시내대학 경쟁률 17.52대1
학령인구 감소추세에도 영향없어

올해 서울지역 수시모집 지원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입 경쟁률이 낮아졌으나, 전형방식이나 제한조건 등에 따른 경쟁률 등락이 눈에 띈다.

10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대학들에 따르면, 9일 마감한 2020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결과 건국대 등 서울 시내 15개 대학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17.52대1로 전년도 같은 기준(17.57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대입 수험생이 전년 대비 약 5만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학 지원자 감소폭은 크지 않다.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지역 대학의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별 경쟁률 등락은 눈에 띈다.

경희대 19.98대1(↓전년도 21.44), 국민대 9.46대1(↓전년도 9.74), 서강대 30.84대1(↓전년도 33.96), 서울대 6.77대1(↓전년도 7.12), 서울시립대 17.20대1(↓전년도 17.36), 연세대 16.96대1(↓전년도 19.48), 이화여대 11.33대1(↓전년도 12.00), 한국외대 14.09대1(↓전년도 14.99) 등 8개교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하락했다.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진학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건국대 25.02대1(↑전년도 21.02), 고려대 8.44대1(↑전년도 8.23), 동국대 20.56대1(↑전년도 18.01), 성균관대 25.57대1(↑전년도 24.61), 숙명여대 14.43대1(↑전년도 13.02), 중앙대 22.84대1(↑전년도 21.44), 한양대 26.95대1(↑전년도 26.59) 등 7개교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대학별 전형 방식과 지원 제한 조건에 따른 경쟁률 격차가 크다. 지원 자격의 제한이 없는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타 전형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KU논술우수자전형(64.60대1),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형(43.33대1), 서강대 논술전형(95.33대1), 성균관대 논술우수자전형(71.95대1), 이화여대 논술전형(25.55대1) 등은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논술전형 가운데, 경희대 논술우수자전형(54.73대1), 서울시립대 논술전형(48.82대1), 숙명여대 논술우수자전형(25.02대1), 연세대 논술전형(44.38대1) 등은 전년대비 지원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전형으로 분류된다. 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제한이 있거나, 학교장추천 등이 있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건국대 KU학교추천(8.19대1), 경희대 고교연계전형(5.20대1), 고려대 학교추천I(3.88대1),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7.66대1),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3.26대1),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3.97대1), 중앙대 학교장추천전형(5.11대1) 등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희대·서강대 등 인문학연구소에 국고 지원

최대 6년간 연 2억씩 지원
박사급 학문후속세대 채용

인문사회 분야 순수·기초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사회적 문제에 인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연구소 74곳이 새로 선정돼 국고 지원을 받는다. 이들 연구소는 박사급 학문후속세대 최소 2명을 채용하도록 해 150여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략적지역연구형 4곳, 순수학문연구형 35곳, 문제해결형 15곳, 교육연계형 20곳 등 총 74곳을 2019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략적지역연구형은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와 지역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 연구소와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선정됐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 한자문화연구소 등은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와 해외학술서 번역,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학문연구형 연구소로 선정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문제해결형 연구소는 국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로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선문대 글로벌 지속가능경제발전 경제연구소가, 대학혁

신 지원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교육연계형으로는 중앙대 다문화콘텐츠연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소는 최대 6년(3+3년)간 연평균 2억원씩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연구소 당 2명 이상 총 150여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도록 해 박사급 학문후속세대가 전입 연구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개 유형이던 지원사업을 전략적지역연구형·순수학문연구형·문제해결형·교육연계형 등 4개로 재편했다. /한용수 기자

성신여대, 신세계 시코르에 화장품·장학금 지원받아

'청년 지원' 사회공헌 대상 선정
시코르 프로팀, 메이크업쇼 선행

성신여대는 지난 9일 강북구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신세계 시코르와 메이크업 제품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의 뷰티 편집샵 브랜드인 시코르는 하반기 '청년지원' 테마사업의 사회공헌 대상으로 성신여대



9일 강북구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신세계 시코르-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메이크업 제품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를 선정했고, 이번에 약

4800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제품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시코르 CSR담당 김형렬 상무 일행과 김주덕 뷰티산업학과장, 뷰티산업학과 학생들이 참석했고, 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전달식 뒤에는 시코르 메이크업 프로팀이 메이크업 쇼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전달 받은 제품에 대한 설명과 메이크업 기법을 선보였다. /한용수 기자

北 미사일 발사... 북미대화 주도권 유도

북한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9일(구구절) 다음날인 10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번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전후로 7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이어오다 연합연습 종료 후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6시53분·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최대비행거리 약 330km로 탐지됐다.

앞서 9일 최섉희 북한 외무상 제1부장은 미국과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6시 53분, 7시 12분경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약 330km 비행. /연합뉴스

군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를 통해 공개한 신형 무기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른 일본 측의 정보공유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철 기자

경희대, 기후변화 주제로 국제워크숍

스마트기술 이용한 도시환경 개발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연구공유·토론

경희대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도시 환경에서의 수요 기반 기후변화 적응'을 주제로 제1차 기후변화 적응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날로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현명하게 적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 겸 미원석좌교수(전 UNESCO 사무총장)와 유가영 경희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스콧 마코 미국 데이비연구소 박사, 도디 우디안토 파라하안카톨릭대학교 교수, 문진우 중앙대 교수, 공우석 경희대 교수 등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대



경희대 본부 전경 /경희대학교

일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사업팀장 유가영 교수는 "기술의 발달로 지능화 기반 스마트 기술은 기후변화 적응 영역에서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도시 환경 개발과 도시 생태계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관련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연구사업이다. /한용수 기자

방사청 조직 개편... 사업 효율성 높이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방사청은 "핵심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사업관리 중심의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을 오는 17일자로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간 예산 15조 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하나의 사업부에서 사업·계약을 통합 수행하게 되면 사업부장의 책임 아래 사업과 계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개의 사업관리본부 2개로 늘렸다. 방위사업 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확대했다.

기존 계약관리본부가 수행하던 계약업무는 2개의 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약제도 등 계약 관련 공통지원 기능은 방사청 본부으로 편성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